

노약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Preventing the Abuse of Elderly People)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www.http://mhcs.health.nsw.gov.au](http://mhcs.health.nsw.gov.au)

e-mail: [mhcs@doh.health.nsw.gov.au](mailto:mhcs@doh.health.nsw.gov.au)

phone: (02) 9382 8111

한 실직상태의 남자가 병약하고 가족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고급승용차를 사기위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고액의 돈을 갈취, 은행에 입금시킨다.

70세의 한 노인은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됐지만 주말이면 노약자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중 몇주도 소식이 없는 그녀를 방문한 노약자센터의 코디네이터는 남편으로부터 외출은 물론, 전화통화마저도 제한받고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된다.

노인성치매(dementia)에 시달리던 78세의 한 노인은 가끔 얼굴과 팔등에 상처를 입은 것이 특격되곤 했는데 그의 부인이 간병에 힘이 겨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노약자 학대의 몇몇 사례이다. 아무도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노약자학대가 가정내 폭력이나 아동학대보다 더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노약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함에있어 무지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이나 친지의 보호로 귀결되고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노인 학대는 여러가지 형태를 보인다. 간병인에게 돈을 빼앗기는 금전적 학대,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외롭이가 되게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가 보고되고 있다.

강금, 폭력등 신체적 학대는 물론 음식, 의복,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하면 심각한 학대를 호소하는 노인들도 발견되곤 한다.

왜 사람들은 노약자들을 이런식으로 방치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간병에 수고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희생과 봉사가 수반돼야하는 간병에 열심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그러나 노약자 간병은 때론 힘든 일이고 특히 노약자가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못하고 노약자를 구타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약자와 간병인들을 위한 다수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의와 상의하면 지역보건센터의 소수민족 보건요원이나 노약자 보호조정팀과 연결될 수 있다.

학대를 당한 노약자들은 또 경찰에 신고, 보호를 받을 수도있다. Apprehended Violence Order는 가해자가 노약자에게 접근할 경우 사법처리를 할수있다.

누군가 주위에서 이같은 노인학대를 겪고있다면 위와같은 내용을 알려주자. 그리고 노인학대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당신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